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수진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명 (한양대학교 부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획된 행동모델의 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미래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창업의도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주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왔던 것에 주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PFAI (Performances Failure Appraisal Inventory) 척도를 사용,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 등을 매개로 한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역할로써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계획된 행동모델의 구성요소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여 각각 영향을 미침으로써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에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약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PFAI, 계획된 행동 모델(TPB), 창업의도, 창업교육

1. 서론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은 은퇴, 이임, 매각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장만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문화, 기업 실패를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은 창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왔다. 그러나 실패는 기업가정신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연구자는 기업의 성공 뿐 아니라 실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사실 실패는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속성으로 선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Aldrich, 1999; Learned, 1999; McGrath, 1999).

기업가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업들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져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데(Flores-Romero, 2004), 이때 기업가가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연구는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되어 진행되어왔고(Cacciotti et al. 2015), 사회적 분위기 역시 사업 실패에 대한 위협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꺼리는 형편이다.

European Commission(2003)은 Green Paper on Entrepreneurship in Europe 보고서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기업가적 활동이 저조한 현상을 유럽의 기업가들이 미국의 기업가들보다 사업실패의 사회적 낙인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법적, 재정적 실패의 공식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파산이나 기업가적 실패 외에, 비공식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기업가정신에 더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업가의 심리적 장벽은 기업가적 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Landier, 2004).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패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 제1저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sheis-sj@hanmail.net

** 한양대학교 교수, hanjh@hanyang.ac.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부교수, sanglee@hanyang.ac.kr

·투고일: 2016-05-25

·수정일: 2016-06-29

·게재확정일:2016-06-30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계획된 행동모델의 변수를 매개로 하여 두려움과 행동, 그리고 의도와 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창업교육이 이러한 부정적 관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행동, 의도와 의 관계와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통해 향후 창업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간단하게는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70년대 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이 독립적인 연구대상이라기보다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와 관련된 연구에서 파생된 개념이었다. 성취동기란 탁월하려는 욕구, 우수함과 성공을 향한 욕망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McClelland, et al. 1953).

Feather(1966)은 성취동기를 원하는 동기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합으로 보았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인 자극을 피하려는 동기이며, 어떤 과제에 대해 성공을 원하는 동기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때, 개인은 실패와 관련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직면한 상황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동기변인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Birney, et al. (1969)은 이전 연구자들과 달리 성취동기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Birney et al.(1969)은 실패가 종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실패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생각에서 성취에 실패했을 때의 결과인 자기가치의 감소, 비자아치별, 사회적 가치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에는 이를 더 발전시킨 연구들이 나타났다. Conroy(2001)는 Lazarus(1991)의 인지적-동기적-관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는 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Conroy(2001)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1)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 2)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 3)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 것, 4)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5)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류하였다.

2.2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은 신념, 태도, 행동의도,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모형이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Ajzen, 1985; 1988; 1991).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Fishbein & Ajzen(1975)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Norman & Smith, 1995).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자 인지적 과정으로, 이 때의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의 행동의도는 어떤 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인식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규범,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인지된 행동 통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행동실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행동실행의 지각된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평가태도에 영향을 받은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태도는 행동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수행 결과에 관한 신념(Belief)과 그러한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의 태도적 신념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대한 지각과 이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이 행동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에 기초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준거인들이 자신의 행동수행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수행을 촉진시키는 주관적 규범을 지니게 된다. 반면, 대부분의 준거인들이 행동의 수행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행동의 수행을 회피하도록 하는 주관적 규범을 지니게 될 것이다. 즉,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주변인들의 기대에 대한 신념과 주변인물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된 행동 통제는 개인의 통제적 신념과 통제 요소인 지각된 자원의 곱이라는 통계적 신념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통계적 신념은 기술, 자원 및 기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고, 지각된 자원은 특정 행동 결과를 달성하는데 이들 기술, 자원 및 기회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Ajzen, 1985; 1991).

2.3 창업의도

Timmons(1994)는 창업을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써, 하나의 사업체가 탄생하기 위해 계획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창업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창업의도라 하였다.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

점이 우세한데,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Yoon, 2012), 개인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과정적 측면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창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이기에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가장 처음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즉,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창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고 (Park et al. 2011), 창업에 대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태도이며, 태도를 실제 창업이라는 결과로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Yoon, 2004).

Krueger et al.(2000)는 창업의도를 ‘창업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상태’라 정의하고, 창업의도가 높은 것은 취업보다 창업에 더 호의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Kim & Kim, 2012).

창업의도(Entrepreneurshipintention)는 창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창업을 계획하고 조직을 설립하는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의도가 창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은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Veciana et. al. 2005; Park & Kang, 2007), 이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McClelland(1965)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창업자의 성취욕구는 창업의도 및 창업 실행에 있어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Komives(1972)는 첨단기술 분야의 성공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이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성취욕구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적극성, 진취성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Krueger, 1993; Lee, 2000).

Johnson(1990)은 성취욕구와 창업관련 행동이나 성향(Inclination)과의 관계를 다룬 23개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그 중 20개의 연구결과에 있어 성취욕구와 창업관련 행동이나 성향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입증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 중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역량과 상황 통제력에 대한 신념이 높아, 창업의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Krueger & Brazeal, 1994)

그 밖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감정적 능력, 적극성 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 기업가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성취 욕구,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개인적 성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된 바 있다. Lee(2000)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성취욕구, 내적통제부위,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성취욕구와 통제부위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04)은 사업지향성,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네트워크 환경, 안정지향성 등이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사업지향성,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안정지향성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Choi(2012)는 그의 연구에서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제시하며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그 중 심리적 요인의 직업가치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Crant(1996)는 창업자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 비해 창업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밝혔고, Turker, & Selcuk(2009)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교육, 가족과 친구의 지원, 환경적 지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창업가의 창업의도 결정요인을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점차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창업교육, 정부정책, 리더십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Kuckertz & Wagner, 2010).

2.4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최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정책학, 건축, 성인학습, 사회학, 기업가정신 등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축소시키는 인지작용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창업의도, 유지의사를 비롯한 기업가적 활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로 위험회피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단일항목으로 측정하거나(Bosma & Schutjens, 2011; Hormiga & Bolivar-Cruz, 2014)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개념화시켜(Noguera, et al. 2013; Vaillant & Lafuente, 2007)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속성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매년 발간되는 GEM 연구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이 창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합니까?’ 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내용타당성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Olaison et al. 201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적 속성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평가 척도(Performances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경기를 위한 훈련과 연습, 실전에 있어 개인의 역량 못지 않게 심리적 요인이 경기의 결과인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Conroy, 2001), 최근에는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분야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 분야 연구에서는 PFAI 지수를 활용하여 기업가의 기회인식, 성과, 기업가적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Wood & Pearson, 2009; Mitchell & Shepherd, 2010; Mitchell & Shepherd, 201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의 지속성, 기업

초기단계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킴으로 창업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renius & Minniti 2005, Morales-Gualdron, & Roig, 2005), Shinnar et al.(2012)는 중국, 미국, 벨기에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가 되려는 의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업 초기 활동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행동 및 성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척도를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임상적으로 검증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척도들이 국내의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척도(PFAI)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5 창업교육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

창업의도에 관한 Timmons(1994)는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팀워크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1998)는 창업자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창업 관련지식과 기술, 즉 창업기술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창업의도를 촉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창업기술을 배움으로써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보다 촉진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계획된 준비기간이어야 하므로 창업교육 및 현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ae, 1998). Yang(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의 기업가정신교육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를 강화시켜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Ronstadt(1990)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확실성을 지식으로 대체하는 교육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둘째, 지인에게 성공한 창업가와 같은 역할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Diffley,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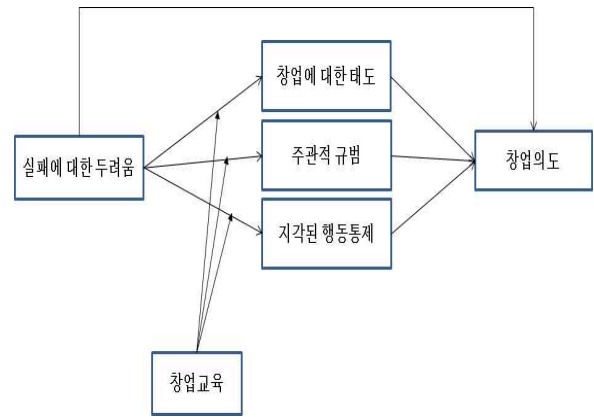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획된 행동모델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와의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획된 행동모델의 매개효과,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3.2.1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를 비롯한 기업가적 행동의 주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인적 자원과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킨다(Mitchell & Shepherd, 2011). 매년 실시되는 GEM의 연구에 의하면 2014년의 연구에서 혁신주도형 경제권인 일본의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54.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잠재적인 창업의도는 2.5%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창업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활동을 저조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의 지속성, 기업 초기단계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킴으로 창업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renius & Minniti 2005, Morales-Gualdron & Roig, 2005). 중국, 미국, 벨기에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가 되려는 의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Shinnar et al. 201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속성을 반영한 Mitchell & Shepherd(2011)의 연구에서는 CEO가 가진 실패의 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개인특성이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 혹은 강화 시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CEO가 가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종류에 따라 개인특성이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실패로 인한 가치평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인적자원과 기업가적 행동의 긍정적 관계를 약화시킨 반면,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영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적자원과 자기효능감, 기업가적 행동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려움이 자기중심적인지, 타인중심적인지에 따라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Wood & Pearson.(2009)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직

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창업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적용하여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행동요인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행동의지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Ajzen & Fishbein(1980), Ajzen(1991)의 연구에 의하면, 의지는 미래 목표행동에 대한 몰입을 나타내며 그런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이다.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통제력 등 세 가지 핵심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Ajzen, 1985). 따라서 창업의도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행동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행동에 대해 개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그 행위를 수행할 의도 또한 더 높아진다(Davis et al. 1989; Moore & Benbasat, 1991).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였을 시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과 그러한 행동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의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 수행 결과에 대한 신념은 특정 행위가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 확률을 의미하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는 특정 행동결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 즉, 특정 행동 결과가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특정 준거집단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특정행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압력이란 표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Thompson et al. 1994). 만일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 같다고 개인이 믿고

있다면, 그는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누군가가 어떤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주관적 규범으로부터 오는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인물이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주관적 규범은 주변인물의 신념과 그 신념을 수용하려는 개인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태도와 함께 창업의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의 행동이 본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며,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고 어려움가에 관한 개인의 지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창업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는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Ajzen, 1991; Krueger & Brazeal, 1994).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결과에 따라 개인적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동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태도와 행동 간에는 긍정적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를 낮추는 데 있어 창업에 대한 태도가 둘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태도의 평가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대상 혹은 그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ark, 2014). Schifter & Ajzen(1985)는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는데,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가 발달한 동양 문화권에서 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변수들은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변수이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창업에 대한 태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3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Izedonmi & Okafor(2010), Lee & Lee(2015)의 여러 학자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들이 창업의도를 불러일으키는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창업프로그램이나 창업정책들을 통해 기업가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면 개인의 창업에 이르게 하는 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4). 이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창업교육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 가설 1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창업교육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 가설 13: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창업교육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Conroy(2001), Conroy, et al.(2002), Conroy, et al.(2007), Mitchell, & Shepherd(2010), Bae,(2009) 등이 사용한 PFAI 지수를 사용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에 대해서 역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Ajzen(1985, 1988), Ajzen & Fishbein(1980), Carr & Sequeira(2006) 등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각각 5문항, 7문항, 5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Ajzen(1991), Shapero, & ol(1982), Lee(2000), Yoon(2004) 등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은 Garavan, & O'cinneide(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업교육 과목에 대한 수강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수정하여 이분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향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380부를 배포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2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결과에 대

한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된 빈도분석은 SPSS 21.0을, 잠재변수들 간 신뢰성과 타당성 및 인과관계는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실증 분석결과

4.1 표본특성 및 타당성 · 신뢰성 분석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96명(61.1%), 여성이 125명(38.9%)이고 20대가 313명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며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 158명(49.2%), 이공계 157명(48.8%), 예체능계 6명(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성	196	61.1
	여성	125	38.9
합 계		321	100
나이	10대	3	0.3
	20대	313	97.5
	30대	5	1.6
합 계		321	100
전공	인문사회계	158	49.2
	이공계	157	48.8
	예체능계	6	1.9
합 계		321	10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통해 잠재변인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인, 즉,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이 낮으며 측정오차가 비교적 높은 항목을 제거해가는 방법으로 모형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고차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쳐 16개 항목이 4개의 요인으로, 4개의 요인이 다시 1개의 요인으로 채택되었고, 창업에 대한 태도에서는 5개 항목이, 주관적 규범에서는 초기 7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제거되어 5개 항목이, 지각된 행동통제에서는 초기 4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이 제거되어 3개 항목이, 창업의도에서는 초기 5개 항목이 채택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성 분석에서 Cronbach's α 는 모두 0.8 이상(실패에 대한 두려움 .835, 창업에 대한 태도 .951, 주관적 규범 .910, 지각된 행동통제 .809, 창업의도 .934)의 값을 나타내어 구성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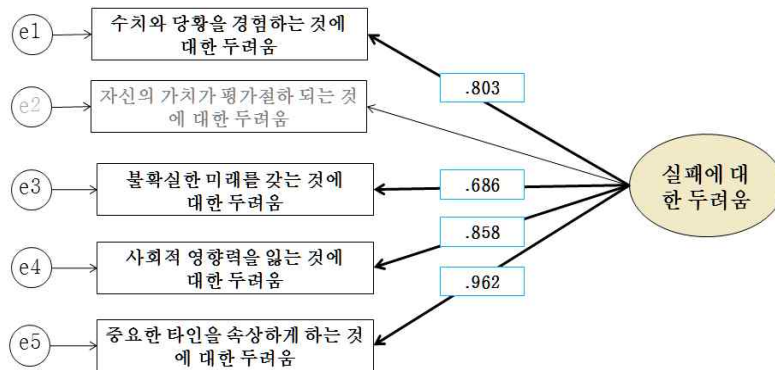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일반적인 적합기준을 충족하여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적합지수는 $\chi^2=672.151$, $df=199$, $p=0.000$, CFI=.921, NFI=.893, IFI=.922, TLI=.909, RMSEA=.08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역시 수용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표 2> 타당성·신뢰성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 적재 치	표준 오차	Cronbah's a	개념신뢰도	AVE	
실패에 대한 두려움 (2차요인)	1차 요인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883	.070	.835	.757	.572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788	.069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634	.061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697	-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은 나에게 있어 유용함	.881	-	.951	.875	.796	
	창업은 나에게 있어 긍정적	.914	.042				
	창업은 나에게 있어 가치가 있음	.893	.042				
	창업은 나에게 있어 매력적	.898	.046				
	창업은 나에게 있어 만족을 가져다 줌	.875	.046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창업에 대한 부모님의 긍정적 의견	.635	.053	.910	.777	.671	
	창업에 대한 동료의 긍정적 의견	.694	.051				
	창업에 대한 가까운 친구의 긍정적 의견	.877	.039				
	창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 정도	.938	.045				
	우리사회의 창업에 대한 지원	.907	-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창업할 기업이 5년 이내 성공할 가능성	.805	.105	.809	.634	.586	
	학업을 마친 후 창업기회의 진로선택 여부의 주체	.757	.092				
	학업을 마친 후 5년 내 창업할 충분한 지식보유	.732	-				
창업의도	머지않은 장래에 창업할 계획	.881	.057	.934	.788	.740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업할 의사	.916	.057				
	사업체를 소유 혹은 운영할 의사	.858	.059				
	좋은 아이템 발견 시 창업할 의사	.819	.056				
	직원의 역할보다 창업경영인의 역할 선호	.821	-				
$\chi^2=672.151, df=199, p=.000, CFI=.921, NFI=.893, IFI=.922, TLI=.99, RMSEA=.086$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에 대해 고차 요인분석(High-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고차 요인분석이란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1차 요인 위에 다시 2차요인, 3차요인과 같은 상위요인이 존재하는 모델로써(Song, 2014), 그동안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어 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속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위의 5개 요인이 상위 단일요인으로 묶이는 PFAI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

종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묶였으며, 네 가지 1차 요인은 다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2차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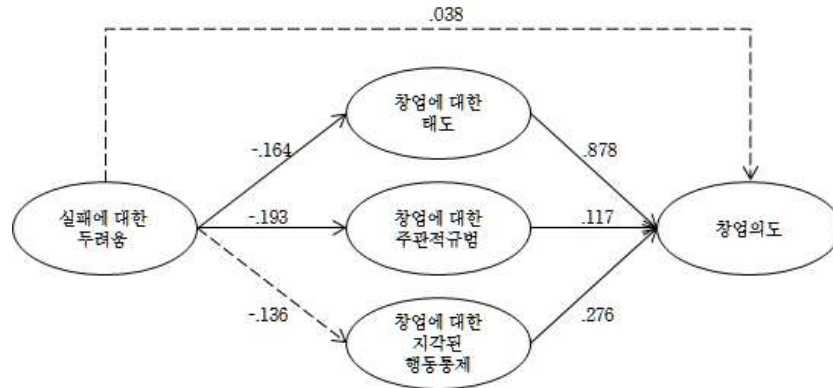


<그림 2> 독립변수의 고차요인 분석

4.2 가설 검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756$, CFI=.925,

NFI=.895, IFI=.925, TLI=.914, RMSEA=.084로 적합도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분석결과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벗어나($p=.300$)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계획된 행동모델과의 관계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가설 2와 3이 채택되었고,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또한 계획된 행동모델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가설 5, 가설 6,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며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주요과 검증결과

경로	계수값	C.R.	P
H1 실패에 대한 두려움 → 창업의도	.038	1.037	.300
H2 실패에 대한 두려움 → 창업태도	-.164	-1.967	.050
H3 실패에 대한 두려움 → 주관적 규범	-.193	-2.273	.023
H4 실패에 대한 두려움 → 행동통제	-.136	-1.654	.098
H5 창업태도 → 창업의도	.878	13.589	.000
H6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117	2.167	.030
H7 행동통제 → 창업의도	.276	5.498	.000
모델적합도	$\chi^2/df=2.756$, CFI=.925, NFI=.895, IFI=.925, TLI=.914, RMSEA=.084		

다음으로는 계획된 행동모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절차를 따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가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 간 관계에서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여야 하고,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여야 하며, 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여야 한다. 이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개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한 상태로 전혀 변함이 없다면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개입된 상태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하지만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하면 부

분매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전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χ^2 의 차이는 .268로, 자유도 1(75 vs 7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χ^2 의 차이는 .037로 자유도 1(75 vs 7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매개효과를 가짐으로써 가설 9도 채택되었다.

반면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는 제약모델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 유의수준을 벗어나(p=.128)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앞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각각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변수로 한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성립

되어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모델의 두 변수가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

H8 창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제약모델				비제약모델				
	경로계수	t	p	x2/df	경로계수	t	p	x2/df
실패→태도	-.107	-1.752	.080*	248.688/75 (p=.000)	-.109	-1.786	.074*	248.420/74 (p=.000)
태도→의도	.872	17.926	.000**		.874	17.876	.000**	
실패→의도					.018	.520	.603	
CFI=.956, NFI=.938, IFI=.956				CFI=.956, NFI=.938, IFI=.956				
H9 창업에 대한 주관적규범의 매개효과								
제약모델				비제약모델				
	경로계수	t	p	x2/df	경로계수	t	p	x2/df
실패→태도	-.131	-2.138	.033*	219.574/75 (P=.000)	-.132	-2.144	.032*	219.537/74 (P=.000)
태도→의도	.655	12.505	.000**		.656	12.422	.000**	
실패→의도					.010	.194	.846	
CFI=.956, NFI=.937, IFI=.958				CFI=.957, NFI=.937, IFI=.958				
H10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								
제약모델				비제약모델				
	경로계수	t	p	x2/df	경로계수	t	p	x2/df
실패→태도	.100	-1.524	.128	168.431/52 (P=.000)	-.098	1.469	.142	166.395 /51 (P=.000)
태도→의도	.676	10.600	.000**		.675	10.534	.000**	
실패→의도					-.010	.193	.847	
CFI=.951, NFI=.931, IFI=.951				CFI=.951, NFI=.931, IFI=.951				

다음으로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 동시분석을 실시하였다. x2차이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약하게나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C.R=-2.072, p=.038)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미약하게나마 강화(C.R=-1.900, p=.057)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 13도 기각되었다.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있어서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가설의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결론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5>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구분	교육 무	교육 유	x2(df)
	C.R(p값)	C.R(p값)	
H11 실패두려움→창업태도	-.889(.374)	-2.072(.038)*	227.668(3)*
H12 실패두려움→주관적규범	-1.778(.075)	-1.900(.057)**	
H13 실패두려움→행동통제	-1.210(.226)	-1.397(.162)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순히 단일항목으로 측정해왔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onroy(2001)가 개발한 PFAI 지수를 활용,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모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특성 변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건 하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였을 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어 계획된 행동모델의 두 변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변수들은 각각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미래 행동의 예측변수인 의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창업교육의 경우,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에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약하게나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창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요인 중심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심리적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진행되었던 창업의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심리적 특성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단일항목으로 측정해왔던 개념을 PFAI 척도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창업의사결정에 미치는 구성변수로 활용하여 기업가정신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계획된 행동모델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혀내었다.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보유자원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창업자의 특성이 크게 부각되는 만큼, 향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주관적 규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이 이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on Graevenitz et al.(2010), Fayolle et al.(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학습자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학습하게 되어 이를 사전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학습과정에서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현재 학습자 자신의 역량 간의 차이를 알게 되어 상대적으로 준비없는 창업의 실패 위험성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향후 창업교육에 있어 기업가정신 교육의 확대, 실전 훈련 위주의 창업 교육, 성공사례 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교육의 적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실패를 경제적 관점에서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Cope, 2011; Minniti &

Bygrave, 2001).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노력한 실패는 기업가적 과정 중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똑똑한 실패는 인정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McGrath, 1999). 그러할 때 활발하고 과감한 기업가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실패로부터 학습이 일어나 자산으로 축적되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사전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태도의 부정적 관계 및 주관적 규범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초등학생 때부터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의성, 혁신성 등을 함양하고자 전생애주기적 기업가정신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만큼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지향성을 함양한다면, 위험감수성향, 적극성 고취로 인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수에 대해 단일시점에서 설문을 진행하여 변수추정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창업교육의 수강여부를 측정하여 반영함으로써 창업교육의 유형별 차이, 창업교육 과정 중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실증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절변수로 사회적 안전망인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인식 등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변수에 대한 관련연구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Aldrich, H. E.(1999), *Organizations evolv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rlin; Springer Berlin Heidelberg.

_____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 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_____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1969), *Fear of*

- failure. Van Nostrand-Reinhold Co.
- Bae, D. S.(2009),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ion Effects of Academic Motivation*, master's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Bae, Z. T.(1998),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2), 155-180.
- Bosma, N. & Schutjens, V.(2011), Understanding regional variation in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in Europe.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7(3), 711-742.
- Cacciotti, G.(2015), *Fear of failure in entrepreneurship: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
- Cacciotti, G. & Hayton, J. C.(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2), 165-190.
- Carr, J. C. & Sequeira, J. M. (2007), Prior family business exposure as intergenerational influ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10), 1090-1098.
- Cho, B. J.(1998),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of Korean Startups and Implications for Opportunity Search Strateg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0(1), 245-266.
- Choi, Y. L. & Ha. K. S.(2012), Factors affecting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195-212.
- Conroy, D. E.(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 *Anxiety, Stress and Coping*, 14(4), 431-452.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onroy, D. E., Kaye, M. P. & Fifer, A. M.(2007), Cognitive links between fear of failure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5(4), 237-253.
- Cope, J.(2011),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6), 604-623.
- Crant, M. J.(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avis, F. D.(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 Diffley, J. H.(1983), *Important Business Competencies for the Woman Entrepreneur*. In Business Education Forum 37(7), 31-33.
- European Commission(2003), *Green Paper Entrepreneurship in Europ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ía aplicada*, 24(2), 509-524.
- Feather, N. T.(1966), Effects of prior success and failure on expectations of success and subsequent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87-298.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s,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ssachussets: Addison-Wesley.
- Flores-Romero, M. G.(2004), *Is Entrepreneurship More about Sticking with a Firm, or about Running Several of Them? Evidence from Novice and Serial Entrepreneurs*. Paper presented at the Industrial Economics Workshop, March 2004, University of Warwick.
- Garavan, T. N. & O'Ki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6)*.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ormiga, E. & Bolívar-Cruz, A.(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tion experience and risk perception: A factor in the decis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2), 297-317.
- Izedonmi, P. F. & Okafor, C.(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10(6), 49-60.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omives, J. L.(1972), *A preliminary study of the personal values of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In *Technical entrepreneurship*, A symposium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Milwaukee, Milwaukee Wisconsin;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N. F. & Brazeal, D.(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524-539.
- Lazarus, R. S.(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
- Landier, A.(2004), *Entrepreneurship and the stigma of failure*,

- paper presented at the MIT Finance, Development and Macro Workshops.
- Learned, K. E.(1999), What happened before the organization? A mode of organizational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1), 39-48.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121-146.
- McClelland, D. C.(1965), Need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389-392.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 Clark, R. A.(1953),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1), 13-30.
- Minniti, M. & Bygrave, W.(2001), A dynamic model of entrepreneurial learn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3), 5-5.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0), To thine own self be true: Images of self, images of opportunity, and entrepreneurial ac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1), 138-154.
- _____ (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95-209.
- Moore, G. C. & Benbasat, I.(1991),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adopting an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 192-222.
- Morales-Gualdrón, S. T. & Roig, S.(2005), The new venture decision: An analysis based on the GEM project database.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 479-499.
- Noguera, M., Alvarez, C. & Urbano, D.(2013), Socio-cultural factors and femal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9(2), 183-197.
- Norman, P. & Smith, L.(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exercise: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ur, behavioural intentions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4), 403-415.
- Olaison, L. & Sørensen, B. M.(2014), The object of entrepreneurship: failure, fiasco, fraud.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20(2), 193-211.
- Park, J. W. An, S. K. & Yoon, I. C. (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4), 2499-2520.
- Park, K. O.(2014),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33(5), 233-247
- Park, S. S. & Kang, S. I.(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s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1(2), 187-204
- Ronstadt, R.(1990),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Current developments, future directions*, 69-88.
- Schifter, D. E. & Ajzen, I.(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843-851.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hinnar, R. S. Giacomini, O. & Janssen, F.(2012).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The role of gender and cul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3), 465-493.
- Song, J. J.(2014), *Statistical analysis method of SPSS/AMOS*, Seoul, 21st Century Press.
- Thompson, K. E., Haziris, N. & Alekos, P. J.(1994), Attitudes and food choice behaviour. *British Food Journal*, 96(11), 9-13.
- Timmons, J. A. & Spinelli, S.(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Vol. 4)*. Burr Ridge, IL: Irwin.
- Turker, D. & Sonmez S. S.(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Vaillant, Y. & Lafuente, E.(2007), Do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condition the influence of loc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examples over entrepreneurial activit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4), 313-337.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Von Graevenitz, G., Harhoff, D. & Weber, 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
- Wood, M. S. & Pearson, J. M.(2009), Taken on faith? The impact of uncertainty, knowledge relatedness, and richness of inform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xploitation.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6(2), 117-130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06.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Kim, Soojin*
Han, Jungwha**
Lee, Sangm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failure of potential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using the mediation variables of planned behavior model. There are many existing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but they were mostly focused only entrepreneurial success factors. So in this study we focused on fear of failure of potential entrepreneur. To know the influence of the fear of failure related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we using the scale of PFAI (Performances Failure Appraisal Inven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impact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add to mediating factors - attitude toward the acts,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lso we examined entrepreneurial education as moderating effect in order to offset the fear of failure. In order to test research model, we collected data from 321 undergraduate students.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we employed SPSS 21.0 and AMOS 18.0 for validity,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ear of failure negatively related to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nd subjective norm. Second,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nd subjective norm posi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ird, attitude toward the acts and subjective norm in TPB variables have full-mediation effects between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ect was not significan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failure and attitude toward the acts and subjective norm was even slightly stronger who have taken the entrepreneurial class group.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Fear of Failure, PFAI,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Education

* First Author. Ph.D.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sheis-sj@hanmail.net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hanjh@hany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anglee@hanyang.ac.kr